인후3동 화약골 담장 화사한 벽화로 새롭게 꾸민다

마을주민·KT&G·대학생 참여
전주시, 원도심 활력증진 위해 사업 전개

노후주거지 밀집지역인 전주시 인후3동 화약골 주택 담장이 골목벽화로 화사하게 바뀐다.

전주시는 인후3동 화약골에서 KT&G 전북본부와 대학생 자원봉사자,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도심 활력증진과 건강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담장벽화사업을 전개했다. 인후3동 화약골은 과거 광산이나 채석을 위한 화약을 보관하는 창고가 위치해있어 붙려진 명칭이다.

시는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MOU체결기업인 KT&G 전북본부 등과 함께 오는 13일까지 인후3동 골목길에 스토리가 물씬 풍기는 벽화를 그려, 옛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화약골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다.

특히, 이번 벽화그리기는 시가 벽화그리기에 필요한 재료를 지원하고, 마을주민과 KT&G 전북본부, 자원봉사 대학생 등 200여명이 함께 재능기부와 노력봉사에 임하게 된다. 이들은 이날 노후담장 바탕처리를 시작으로, 바탕처리와 스케치, 페인트칠하기 등 3단계 작업을 통해 총 길이 290미터, 높이 2~4미터의 골목길에 벽화를 그릴 계획이다.

전주시 해피하우스센터 관계자는 "이번 벽화그리기로 화약골만이 가지는 고유한 이미지를 재탄생시킴으로써 낙후된 마을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스토리가 있는 마을로 재생시켜 지역화합과 마을단위 주거복지 실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노후주거지 밀집지역인 전주시 인후3동 화약골 주택 담장이 골목벽화로 화사하게 바뀐다.

원광대 공과대학 안태천 교수, 앨버트 넬슨 평생 공로상 수여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종) 공과대학 전자융합공학과 안태천(사진) 교수가 세계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 후(Marquis Who's Who)에서 수여하는 '2017 앨버트 넬슨 평생 공로상(2017 Albert Nelson Marquis Lifetime Achievement Award)'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국지능시스템학회 이사를 맡고 있는 안태천 교수는 국내외 소프트 컴퓨팅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에 기여하고, 국제 학술교류 및 협력 증진을 도모하면서 인공지능의 한 분야인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을 이용한 계산 지능과 그레뉴얼 분류(Intelligence Computation and Granular Classification) 관련 다수의 우수 논문을 등재한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안 교수는 인공지능 분야의 학술적 공적을 인정받아 지난해 세계 3대 인명사전으로 꼽히는 마르퀴즈 후즈 후 인 더 월드(Marquis Who's Who in the World)와 영국 케임브리지 국제인명센터 IBC(International Biographical Centre)에 등재되기도 했다.

이번 수상으로 안태천 교수는 마르퀴즈 후즈 후의 전문가 인명 데이터베이스(MBO, Marquis Biographies Online)에 독점적으로 접근하고 검색할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됐다.

한편, 마르퀴즈 후즈 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인물정보로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과학, 공학, 예술, 문화 등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사람에게 평생공로상을 수여하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원광대 간호부, 소아환우 위한 페이스페인팅 행사 진행

계절의 여왕이라 일컫는 5월은 어린이 날, 어버이날이 들어 있어 흔히 가정의 달로 불린다.

신록의 푸르름이 더해가는 5월을 맞아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최두영) 간호 천사들이 가정의 따스함 같은 소식을 연신 전하고 있어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원광대병원 간호부 사회봉사위원회에서는 지난 2일 원내 61병동에서 풍선아트와 페이스페인팅 행사를 준비했다.

이날 열린 행사는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입원 생활에 지친 소아환우들에게 조금이나마 웃음과 활력을 전해주고자 준비 한 것이다.

8일 어버이날에는 원내 전 병실을 방문 고령 환자들을 대상으로 물티슈, 크리넥스 등 입원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들을 전달하며 병문안을 했다. 또한 간호사회 임원진들은 솔솔솔 자원봉사대를 찾아 무료급식 봉사 활동을 펼쳤다.

병원의 바쁜 간호업무 와중에서도 자신보다는 이웃의 마음을 먼저 챙길 줄 아는 진정한 간호 천사들의 진면목들을 보여 준 것이다.

원광대병원 류정임 간호부장은 "입원 환우들을 비롯해 몸과 마음이 힘든 이들에게 5월은 가정의 온기가 절실 할 것이다. 크고 화려하지는 않지만 업무에 바쁜 와중에서도 소아환우, 고령 환우, 힘든 이웃들에 따뜻한 손길을 내밀 줄 아는 간호부 직원들이 자랑스럽다"고 전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전주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 어버이날 감사 행사 개최

전주시 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센터장 서양열)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사회 독거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과 선물을 전달하는 뜻깊은 행사를 열었다.

'감사와 나눔'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독거어르신의 어려움을 살피고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블랙야크와 국민카드, 아리랑하우스, 옥성골든카운티 요양병원, 한국전통문화전당의 지원으로 이뤄졌다.

센터는 이날 독거어르신에게 안부전화 및 가정방문을 통해 각종 생활용품을 전달했다. 또, 아리랑하우스에서 독거어르신 100명을 초대해 식사를 제공하고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어버이날의 소중한 뜻을 되새겼다.

특히, 아웃도어 전문브랜드인 블랙야크 전주인후점(대표 이광수)은 어버이날을 맞아 자사의 나들이 모자와 카네이션, 소면, 미역, 라면, 황도, 통조림 등 식품을 포함한 9종의 선물로 구성된 '야크 효(孝)박스' 식품꾸러미 56박스(450만원 상당)를 독거노인생활관리사를 통해 어르신들에게 전달했다.

/김민근 기자

임실군, 거동불편한 어르신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행사 가져

임실군이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읍·면 및 군청 민원실을 방문한 65세 이상 어르신과 거동불편 어르신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기 행사를 가졌다.

군은 경로효친 사항을 군민들에게 심어주고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소외계층을 다시 한번 되돌아 보기 위하여 매년 어버이날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군청 직원들은 이날 민원봉사과를 방문한 어르신들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읍면사무소를 방문한 어르신들 및 거동불편 어르신을 직접 방문해 꽃을 달아드렸다.

특히 이날 심민군수는 군청을 방문한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직접 달아드리며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내시라"는 인사와 고충민원 상담 등 의미있는 어버이날을 보냈다.

/임실=진홍영 기자

박재만 애향운동본부장, 소외계층 이웃사랑 실천

임실군 애향운동본부(본부장 박재만)는 소외계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에 나서 지역의 귀감이 되고 있다.

박재만 본부장은 지사면 영천리에 거주하는 농아 장애인부부가 비위생적이고 온수 시설이 없는 재래식 화장실에서 생활한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다.

이에 이웃사랑 실천의 일환으로 사비 5백만원을 들여 온수 시설을 비롯해 타일 시공, 창호교체와 벽체단열 공사를 실시하고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했다.

박재만 본부장은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이웃이 많다"며 "나눔과 배려를 실천해 더불어 사는 행복한 지역사회 만드는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완산경찰, 서곡초 6학년 대상 학교폭력예방 역할극 펼쳐

전주완산경찰서(서장 강황수)는 서곡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완산청소년경찰학교에서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역할극을 펼쳤다.

여성청소년계 학교전담팀은 청소년경찰학교에서 2개조로 나눠 학교폭력예방 역할극을 시연했다. 학생들이 직접 학교생활을 바탕으로 시나리오 작업을 거치고 피해자의 입장이 되어보면서 이해하는 마음을 키우는 체험의 장이 됐다.

여성청소년계 학교전담팀은 "강의실 예방교육도 중요하지만 가능한 역할극등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김민근 기자

전주매일 www.j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5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전무 겸 편집국장 김관춘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고창지사 563-6999
010-9645-4113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7-8855	임실지사 010-9642-2725
삼천지사	송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6855	진안지사 433-3064
010-2333-4791	팔복지사 253-6844	남원지사 632-0995	정읍지사 536-3787
서신지사 272-9417	군산지사 010-6789-0038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682-6157
효자지사 010-8645-9935	익산지사 858-9923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